제36대 총무원장 선거 9월 28일 확정

조계종 중앙선관위 결정… 입후보 등록 9월 4~6일

선거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선거운동은 자격심사 이후
인신공격·금품제공 금지

총무원 권한대행 체제 돌입
"불교공동체 정신 회복 도모"
중앙종회도 9월 6일 소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에 따라 60일 내 차기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조계종이 9월 28일 선거를 실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4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제36대 총무원장선거 일정을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무원장선거일은 9월 28일, 입후보 등록기간은 9월 4~6일이다. 총무원장선거 출마 자격은 승랍 30년·연령 50세·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을 역임하거나 △교구본사주지 4년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한 자,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9월 13~17일 본사별로 개최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12일 진행되며, 자격심사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 개최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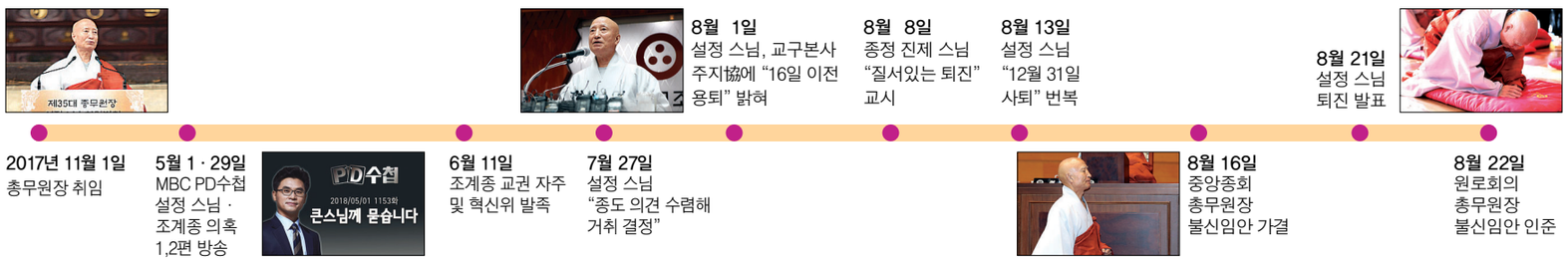
선거 당일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선거인단 240명 등 최대 321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제36대 총무원장이 확정되고,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는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부장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계종은 8월 21일 설정 스님 사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우 스님 명의로 특별담화문을 내고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종헌종법에 입각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종정 진제 스님이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8월 8일 발표한 교시를 봉대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는 26일 개최되는 전국승려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의장실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해종특위 구성 등을 다룰 제211회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종단 개혁 꿈꿨지만, 범계 의혹 '걸림돌'

설정 스님, 총무원장 당선부터 사퇴까지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
선거 과정 범계 의혹들
명확한 해명없이 결백만

종단 내외 비판 이어져
대응 나섰지만 한계 봉착
불신임 가결 초유 사태도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사퇴했다. 총무원장 취임일인 지난해 11월 1일 이후 294일만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존경을 받던 설정 스님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11월 1일 조계사에 열린 설정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정재계 인사와 불자 등 약 1만 명이 운집했다. 당시 설정 스님은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것을 대중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범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설정 스님의 10여 개월의 임기 내내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후한 5월 1일과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에서 제기된 설정 스님의 범계 의혹은 설상가상으로 다가왔다. 당시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MBC가 조계종과 관련한 의혹 수준의 문제제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해명을 약속했지만, 종단 안팎의 여론은 급격히 차가워졌다.

잇단 악재에 6월 11일 조계종은 원로, 본사주지, 중앙종회, 율사 등이 참여하는 종령기구인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와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혁신위원회'로 나눠 활동했다. 특히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는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가 발족했지만, 불교계시민사회단체와 승가단체, 일반 사회단체 등의 설정 스님을 향한 비판은 전방위로 이뤄졌다. 이들은 조계사 앞에서 매주 목요일 촛불법회를 개최하며 설정 스님을 압박했다. 종단 원로인 설조 스님의 단식은 더욱 불을 당겼다. 설조 스님은 41일 간 총무원 청사 앞 우정총국에서 단식을 이어가며 설정 스님의 퇴진과 종단 개혁을 주장했다.

7월 27일 결국 설정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퇴 의사가 담기진 않았지만, 용퇴 분위기에 무게가 실렸다. 설정 스님은 8월 1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을 통해 8월 16일 소집되는 중앙종회 임시회 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종정 진제 스님도 8월 8일 내린 교시에서 사퇴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8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개혁 초석 마련 후 12월 31일 사퇴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자 불교광장 측 중앙종회 의원과 교구본사주협의회 등은 즉각적 반발하고 스님의 용퇴를 촉구했다.

결국, 8월 16일 열린 중앙종회 제211회 임시회서 찬성 56표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조계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불신임안 가결은 설정 스님이 종단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해 이뤄진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명확한 해명 없이 오로지 결백만을 주장한 부분도 종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불신임안 인준을 위한 조계종 원로회의를 하루 앞둔 8월 21일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직을 내려놨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탐진치 삼독 행복 방해하는 근본 번뇌

우리 중생은 번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8만 4천 법문은 코끼리가 함정에서 빠져 나오듯 번뇌의 지옥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이고득락의 가르침입니다.

마음가짐 중에서 가장 나쁜 3가지 번뇌를 '독이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번뇌로서 탐욕(貪慾)과 진에(瞋恚성냄)와 우치(愚癡 어리석음)를 말합니다. 줄여서 탐진치인데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같아서 삼독(三毒)이라고 합니다.



선정-물아일체 그림·조향숙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
'아상과 집착'에서 비롯
삼법인과 계정혜로 제거
"자아 죽어야 무아 된다"

탐진치는 악의 근원으로 업의 덩어리이며 파괴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일체의 번뇌를 압축한 삼독은 '나'에서 나옵니다. 자아에 대한 아상과 집착에서 생성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탐욕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입니다. 탐애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99개를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100개를 채운다'는 속담처럼 우리 중생은 욕망의 대상을 갖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계속됩니다.

탐의 반대는 계(계율)입니다. 계정혜 삼학의 계학(戒學)에 속하는 8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과 6바라밀의 지계와 보시 수행으로 탐욕을 다스려 무탐으로 갑니다.

*성냄·분노(진에)는 탐욕의 이면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에의 반대는 선정(禪定)입니다. 정학(定學)에 해당하는 8정도의 정정진, 정념, 정정삼매와 육바라밀의 인욕과 정진, 선정으로 분노를 극복합니다.

*어리석음(우치)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볼 수 없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모든 번뇌의 근원으로 탐심과 진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치의 반대는 혜(지혜)입니다. 혜학(慧學)에 해당하는 8정도의 정견과 정사유, 지혜바라밀로 치심을 다스립니다.

*탐진치를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없애 지혜로워 지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에 대한 통찰과 계정혜 삼학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나라고 하는 아집 즉 자아(自我)가 죽어야 무아(無我)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 방하착(放下着)합시다. 내려놓고 비우면 걸릴 탐진치가 없습니다. 비움으로 되었을 때 사물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통찰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상의 행복이 있습니다.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 열반의 자리입니다.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1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